



Nespresso

HOME > 농정 > 단체

농지를 농민에게, 경자유전 지켜줄 농지은행관리원 출범

최정민 기자 cjm@newsfarm.co.kr | 승인 2022.02.28 12:31 | 댓글 0

농지상시조사·농지정보 수집·분석 투기 방지...농지 정보 손쉽게 찾아
부족한 예산·인력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
이은만 회장 "비농업인 농지소유 해결 기대"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지난해 LH 직원 농지 투기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며 비농업인의 농지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농업계를 비롯해 사회 곳곳에서 나왔다. 그간 농지와 관련해선 지자체가 농지 취득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담당했으나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농지 투기 및 불법 임대차 단속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농지은행관리원을 설립하고 농지상시조사 및 농지정보 수집·분석 기능을 전문으로 담당케 해 많은 농업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다양한 커피를 매일매일
즐길 수 있으니까
결국, 네스프레소

로그인하고 추가 커피 증정 받기

Nespresso [더보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지난 18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지은행관리원' 출범식을 개최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 김종훈 농식품부 차관을 비롯해 이은만 한국농축산연합회·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신정훈 의원, 정현찬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이 참석했다.



출범식에 앞서 김종훈 차관, 이은만 회장, 이개호, 신정훈 의원, 정현찬 농특위원장, 이학구 회장은 간담회를 진행하고 농지은행관리원의 역할과 더불어 앞으로 강화될 기능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았다.

경자유전 지킴이, 농지은행관리원 관심 ↑

출범식에 앞서 김종훈 차관, 이은만 회장, 이개호, 신정훈 의원, 정현찬 농특위원장, 이학구 회장은 간담회를 진행하고 농지은행관리원의 역할과 더불어 앞으로 강화될 기능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농지법 개정과 더불어 농지은행관리원 출범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 이개호 의원은 “농지는 농민의 삶의 터전이자 식량안보유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며 농지의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고 “농지은행관리원이 농지가 농민에 의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만 회장 역시 “농지은행관리원 출범에 많은 농업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면서 “경자유전 원칙 확립과 더불어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문인력 배치, 예산 48억원 투입

출범을 알리며 본격 업무에 들어간 농지은행관리원은 지난해 3월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개정된 ‘농지법’ 및 ‘농어촌공사법’에 따라 공사에 신설하는 조직으로, 농지의 취득·소유, 이용·전용 현황 등을 상시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등 농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된다.

농지은행관리원은 법령에 따른 시행일에 맞춰 공식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농지관리 업무를 1처 3부 전담 조직을 갖추고 전문인력 87명을 본사(30명) 및 지역본부(57명)에 배치했으며, 올해 예산(농지관리기능강화, 신규) 48억원을 편성했다.

농업계는 농지은행관리원을 통해 공사는 기존의 농지은행 사업 수행뿐만 아니라, 농지 상시조사·관리 체계를 구축해 지자체 농지관리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농지종합관리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농지은행관리원은 ▲농지정보 수집·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지 종합 정보 제공 ▲농지 상시조사·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농지 관리 강화 ▲지자체 교육·컨설팅 지원을 통한 농지관리 전문성 강화 ▲창업농에서 은퇴농까지 생애주기별 농지은행 사업 역할 강화 등을 중심으로 농지정보 상시 조사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국 농지 체계적 관리 가능

구체적으로 농지은행관리원의 주요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면, 우선 농지정보 수집·분석시스템 구축을 통해 농지 종합 정보를 제공과 관련해 토지대장, 농지원부(농지대장), 부동산등기부, 농지은행정보 등 각종 정책 DB 등을 연계해 농지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설치하고, 도출된 정보를 토대로 전국 농지를 체계적으로 상시조사·관리한다.

또한, 농지 관련 통계를 생산·축적해 농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농지가 필요한 사람이 보다 쉽게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용한 농지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상시조사 진행, 농식품부·지자체 정보 제공

농지 상시조사·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농지 관리 강화와 관련해선, 농지 취득·소유 실태조사, 농지 이용·전용 현황조사, 농업진흥지역, 유휴농지 실태조사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으로 농지 취득·소유 실태조사는 관외거주자, 농업법인, 상속농지, 시험·실습지 등의 취득·소유현황 및 경영형태 등의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주기적으로 관련 통계를 생산하여 농식품부와 지자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농지 이용·전용 현황조사는 농지 전용 허가 없이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농막·축사·버섯재배사 등 농지 이용 시설 현황과 이 시설을 태양광 발전에 이용하는 실태도 파악하는 한편, 농지 전용 허가 현황 등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파악·분석해 농지 전용 허가 심사기준 및 절차 개선 방안 마련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농업진흥지역, 유휴농지 실태조사는 농업진흥지역의 효율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영농여건 변화 및 설치시설, 운영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컨설팅 강화 전문성 부족 문제 해결

지자체 교육·컨설팅 지원을 통한 농지관리 전문성 강화와 관련해선 지자체 농지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상·하반기 각 실시하고, 최근 변경된 농지제도 및 농지업무 관련 주요정보(최신판례, 농지관련 민법·세법 등)에 대한 해설과 안내 등을 지원해, 그간 지자체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영농정착부터 노후생활 안정까지 체계적 관리

창업농에서 은퇴농까지 생애주기별 농지은행 사업 역할 강화와 관련해선 농지은행은 생애주기별(관심·창업·성장·위기·은퇴) 농업인의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농지 지원으로 청년농 등 미래 인력의 영농정착과 경영안정, 노후생활 안정 등을 중점 지원한다.

김인식 사장 “농지 공급 선순환 체계구축”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에 진행된 출범식에서 김인식 사장은 “지난해 3월 LH 사태 이후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공사에 농지 상시관리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됐고, 이를 토대로 농지은행관리원이 출범하게 됐다”면서 “농지은행관리원에서는 농지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전국 농지에 대한 취득 및 소유, 이용 및 전용, 농업진흥지역 등을 상시관리·조사하고, 지자체 교육·컨설팅과 농업인 등 정보제공 강화를 통해 농식품부의 농지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사장은 “농지은행관리원의 성공적인 업무를 위해선 정부와 유관기관 그리고 농업인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 농지은행관리원에서는 관리 사각지대의 농지를 농지은행사업과 연계하여 농지를 공급하는 선순환 체계구축 및 기존 조직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지은행관리원 출범과 관련해 이은만 회장은 “농지은행관리원은 경자유전 실현 및 불법 농지투기 근절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다”면서 “농지은행관리원 출범을 통해 근간 자행됐던 불법적, 비정상적 문제로 농업인이 피해를 당하고 손해 보는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부족한 예산·인력 문제 해결 시급

한편, 규모 대비 부족한 예산과 인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예산과 인원으로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가 가능할 수 있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은만 회장은 “출범 첫해 예산도 부족하고 규모도 작아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현실적인 농지상시조사를 통한 불법이용실태 및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그리고 불법적 임대차 문제 등에 대해 조사하고 근절시킬 수 있을까 라는 우려가 있다”면서 “농지와 관련된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은행관리원이 출범한 만큼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해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